

## 투데이

# 나로호 향후 일정 빠르면 오늘 결정

3차 발사 관리위 회의…연내 발사 불투명

전문가 “대선 이유 시기 저울질해선 안돼”

전자부품 이상으로 발사가 연기된 나로호의 향후 발사 주진 방향 등이 빠르면 3일 결정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일 “나로호 3차 발사 관리위원회”를 3일 오전 11시에 개최해 발사 연기 후 진행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발사 주진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또 “한·러 연구진은 지난 달 30일 나로호를 발사체조립동으로 이송했으며, 지난 1일부터 상·하단을 분리한 후 이상 현상에 대해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관리위원회에서는 발사가 중단된 후 진행된 조치 등을 점검하게 되고, 향후 일정도 논의하게 된다.

하지만 일정이 촉박해 애초 발사 예비일(5일까지) 이내의 재발사뿐 아니라 이를 내 발사도 장담할 수 없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5일 이내에 발사하려면 적어도 3일 까지는 점검을 모두 마치고, 나로호를 발사대로 옮겨야 한다. 사실상 일정상 발사 예비일 이내의 발사가 힘들어졌다.

또 발사 예비일 전날의 전남지역

날씨와 제작된 지 5년이 가까워지는 2단 로켓의 연한(年限), 대통령선거 일정 등도 변수가 되고 있다.

4~6일 나로우주센터 일대에 비나 눈이 오는 날이 많을 것이라는 예보가 있어 기상 여건도 좋지 않고, 동지가 낀 12월 하순이 다가오면서 발사 가능 시간대가 짧아지는 점도 연내 발사를 어렵게 하고 있다.

김승조 항우연 원장은 지난달 29일 “이번 기한 전에 쏘이 어려울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항우연 안팎에선 “2단 로켓을 만든 지 5년이 가까워지면서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항우연은 지난 2008년 4월 2단 로켓 3대를 동시에 만들었다. 두 대는 2009년과 2010년 발사 때 사용됐다. 발사가 늦춰질수록 2차 로켓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커진다는 것이다.

이에 일부 전문가는 “대선 영향 때문에 발사 시기를 저울질해서는 안 된다”면서 “2단 로켓의 노후화 문제를 고려한다면 재발사를 한시라도 늦춰선 안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대선 투표참여 ‘두바퀴 홍보단’

전남도선관위 직원과 자전거동호인으로 구성된 ‘두바퀴 홍보단’이 2일 담양군 메타세쿼이아 거리에서 제 18대 대통령 선거 투표 참여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박준영 지사, 베트남 꾼더시와 우호 협정

### 농·수산 협력방안 논의 출국



데리는 베트남 5대 직할시 중 하나로 베트남 쌀 생산의 50%를 점유하고 있는 메콩강 렘타(삼각주)지역의 심장역할을 담당하는 최대 도시에서 농업분야 기술교류가 기대된다.

한편 전남도는 현재까지 13개 국가 30개 도시와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협정을 체결했고, 앞으로는 실리 위주의 국제교류를 강화하는 한편 브라질이나 러시아 등 신중 경제국가와도 협약을 확대할 방침이다.

박 지사는 또 베트남 꾼더시를 방문해 우호교류 협정을 체결한다. 꾼

### U대회 다목적체육관, 3개 컨소시엄 참여

총 공사비 915억 원 규모의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이하 U대회) 다목적체육관 공사에 3개 컨소시엄이 참여했다.

광주시는 “지난 30일 U대회 다목적체육관 3차 입찰을 마감한 결과, ㈜호반건설, GS건설㈜, 진흥기업㈜을 각각 대주주로 한 3개 컨소시엄이 응찰했다”고 2일 밝혔다.

호반건설(지분 30%·광주)은 남광 건설(25%·광주), 중흥엔지니어링(25%·광주), 모아종합건설(10%·광주), 남경종합건설(10%·광주)과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GS건설(42%·서울)은 중해건설(10%·전남), 토암 건설(7%·광주), 우미산업개발

(23%·광주), 한국친환경건설(18%·광주)과, 진흥기업(42%·인천)은 효성(10%·서울), 고명건설(15%·광주), 태호(18%·광주), 상경종합건설(15%·광주)과 각각 컨소시엄을 이뤘다.

애초 1차 입찰 때 응찰했던 현대건설은 3차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다. 현

대건설은 총인시설 공사와 관련해 입찰가 담합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20억 5900만원) 부과 조치된 상태다.

시는 다음달 5일 현장설명을 거쳐

업체가 제출한 기본설계서를 평가한

뒤 내년 3월에 최종 낙찰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백진표기자 lucky@

## 눈이 피로하면 온몸이 피로하다!

눈은 강의 기능과 연관이 있다. 눈의 과로한 환경과 더불어 정신적인 스트레스 상황 속에서 뜻한 바를 이루지 못하거나 고뇌와 분노로 말미암아 간기능이 울결되어 화(火)로 변하면 그 화기가 인체 상부 즉 머리와 눈으로 헛쳐 눈이 침침하고 아득할 정도로 피로해진다. 이러한 증상을 안구건조라 한다.

말기상황에 가까워지면 눈에 통증을 느끼며 눈을 잘 볼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

인다라 한의원

광천사거리 광천파출소 맞은편  
광주은행 6층(신세계백화점사거리)  
www.indara.co.kr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관광심의회 제120917-증-11712호 [광고]  
인다라한의원 대표원장  
민의학박사 김병삼원장



현대인 누구나 겪고있는 스트레스성 질환의 해결법

## 안구건조, 눈피로, 만성피로, 해결책을 찾다!

눈이 건조하고 피곤한 눈피로의 해결법 | 스트레스와 과로에서 오는 만성피로 증상과 해결법

### 눈의 피로의 다양한 증상들

- 책이나 기가운 물체를 잠시만 바라봐도 눈이 침침하고 머리가 무거워진다
- 눈이 몹시 깔깔하고 눈알이 아프다
- 오후만 되면 눈이 팽팽해지고 눈알이 뿌여진다
- 다른사람 눈을 정면으로 쳐다보기 어렵다
- 미음이 금하고 쉽게 흐를 낸다
- 입이 쓰거나 마르고 기침 엎구리가 걸리거나 아프다

## ‘사다리타기’로 광주 총인시설 입찰담합

공정위, 대림·현대 등 4개 건설사에 과징금 68억…검찰 고발

광주 총인처리시설 입찰 과정에서 스마트폰 ‘사다리 타기’ 어플을 이용해 투찰가격을 담합한 업체들에게 거액의 과징금이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광주시가 발주한 제 1~2 하수처리장 총인처리 시설 공사 입찰에서 투찰가격을 담합한 대림산업㈜(과징금 34억 8500만 원)과 금호산업㈜(1억 5800만 원), 코오롱글로벌㈜(11억 800만 원), 현대건설㈜(20억 5900만 원) 등 4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8억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를 4개사는 설계점수 60%·가격점수 40%의 접수 합계로 결정되는 광주 총인처리시설 입찰에서 가격부분을 공사 추정금액

의 94~95% 범위 내에서 정하기로 사전에 합의했다.

4개사 영업사원들은 입찰서 마감한지 날짜 2월 서울 종로구 모카페에서 만나 각각 투찰률이 0.05~0.06%p 차이나도록 4개 가격(94.44%, 94.39%, 94.33%, 94.275%)을 만든 뒤 스마트폰 어플 ‘사다리 타기’를 이용, 각 사별로 투찰가격을 지정했다.

이들 업체가 4개 가격을 사전에 설정한 이유는 담합 협의로 적발되는 것을 피하면서 어떤 업체가 낙찰되더라도 높은 가격을 확보하기 위한 것 이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4개사는 실제 가격 입찰일인 지난 해 3월 3일 사전에 담합한 대로 투찰

가격을 적어냈다. 이후 가격·설계평가가 합산결과 최종 사업자로 대림산업이 100점 만점에 96.74점을 얻어 1위로 선정됐다. 당시 대림산업의 입찰 가격은 871억 356만 원이었으며, 접수율은 한 턱에 최고가와 최저가 차이는 1억 520만 원에 불과했다.

하지만, 검찰수사를 통해 총인처리 시설 공사 수주 과정에서 금품수수 등 각종 비리가 드러나면서 공사업자와 공무원, 교수 등이 무더기로 구속된 상태다.

한편, 총인처리시설은 하수처리수(水) 가운데 인(鱗)을 제거하는 시설로, 광주시 1·2 하수처리장 내 총인처리시설 공사사업비는 982억 원이다.

/백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광주시·전남도 스마트그리드 거점지구 유치 시동

### 오늘 국회 포럼

광주시와 전남도가 호남권 스마트그리드 거점지역 유치에 나선다. 스마트그리드는 기존 전력망에 정보통신 신기술(ICT)을 접목해 공급자와 소비자가 양방향으로 실시간 전력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에너지 효율을 최적화하는 차세대 전력망이다.

전남도는 2일 “광주시와 공동으로 지식경제부가 2014년 구축할 지능형 전력망 거점지구 지정에 대비해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포럼을 개최하고

‘호남권 거점지구 추진방안’이 발표된다.

전남도는 한전을 포함한 15개 공공 기관이 이전하는 나주공동혁신도시에 ‘지능형전력망 애코도시’를 조성하고, 광주시는 시 전체에 지능형전력 계량기를 보급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2010년 1월 스마트그리드 국가로드맵을 수립하고 2011년 10월 지능형전력망법을 제정했으며, 지난 5월부터 스마트그리드 1단계 사업으로 제주 실증단지를 구축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2019년 광주 세계수영선수권 유치위 5일 출범

### 이홍구 명예위원장·박용성 상임고문 추대

광주시가 개최를 추진하는 2019년 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유치위 원회가 오는 5일 공식 출범한다.

광주시와 대한수영연맹은 “5일 오후 2시 광주시 김대중컨벤션센터 컨벤션홀에서 2019 국제수영연맹(FINA)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치위원회 창립총회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강 시장은 또 김성환 외교통상부장관으로부터 제11회 FINA 세계수영대회장을 방문해 FINA 위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등 정부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강 시장은 또

김성환 외교부 차관으로부터 제11회 FINA 세계수영대회장을

제11회 FINA 세계수영대회장을